



|전북여성정책포럼|

녹색성장시대, 여성친화공간을 말하다

□ 행사개요

- 일 시 : 2009. 7. 23(목) 14:00~16:30
- 장 소 : 전북도청 중회의실(3층)
- 주 관 :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
- 주 최 : 전라북도

□ 시간계획

시 간	구 분	내 용
13:30~14:00	등 록	
14:00~14:20	축사 인사말	이경옥 (전라북도 행정부지사) 허명숙 (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)
14:20~15:10	좌 장	이양재 (원광대학교 교수/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장)
	주제 1	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방안 이미원 (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)
	주제 2	도시·건축으로 보는 여성친화공간 김인순 (전주시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)
15:10~15:20	휴 식	
15:20~16:00	지정토론	김태준 (익산시 비전홍보담당관실 정책팀장) 박 훈 (전북의제21 사무국장/진안군 도농교류센터 사무국장) 박은영 (전라일보 차장) 장성화 (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)
16:00~16:30	종합토론	

□ 행사목적

- 녹색성장이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,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관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
- 녹색성장의 원칙은 여성과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친화적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이며, 도시건설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가족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필요한 요건들은 상당부분 환경과의 공존을 원칙으로 함
- 도시에 대한 친환경성을 제기하는 의미 역시 녹지조성, 공간건축의 재질, 공간 내 시설물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, 도시계획, 도로, 교통, 건축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도시생활인으로서의 여성이 일상적 삶에서 겪는 불편과 불안 등을 해소하지 못함
- 보다 적극적이고 평등한 개념의 ‘여성친화공간’은 여성이 일상적 삶에서 겪는 불편과 불안 등을 해소함은 물론, 나아가 여성친화적 생활·문화·근로·교육환경의 구축을 통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 모두에게 편리한 지역을 지향함
- 정부의 4대 국정운영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을 지역공간과 연계해서 젠더관점에서 조명하고, 여성, 가족, 지역사회 속에서 그 의미를 모색하는 한편 공간계획에서의 여성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함